



中상무성, 日잔류농약 규제강화에 반발

농 산물중 잔류농약의 규제를 강화한 일본의 개정 「식품위생법」에 중국 상무성이 경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신화통신에 의하면 상무성은 「중국의 대일 농산물 수출에 대한 장애물(hurdle)이 발생해 일·중간 농산물 무역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간접적이면서도 동법 시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는 중국산 시금치의 잔류농약이 문제가 되어 개정된 동 법(식품위생법)이지만 농산물의 대일 수출이 작년 79억달러(약 9000억엔)와 농산물 전체의 29%에 가까운 중국이 자국 농업에 타격을 준다고 하여 나타난 반응이다.

이 개정법은 지난 5월 29일 시행되었다. 지금까지는 농약 250품목, 사료 첨가물과 동물용의약품 33품목으로 잔류기준이 규제되고 있었지만 이 283품목 이외의 농약 등은 그 기준 자체가 없고 법적규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수입된 중국산 채소에서 잔류농약이 잇따라 검출됨으로써 소비자의 불안이 높아진 것을 배경으로 「식품위생법」을 3년 전에 재검토, 개정하였었다.

개정법에서는 신규로 549품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사료 첨가물 등에 일률적으로 0.01ppm이하로 제한하는 등 엄격한 규정을 정하였다.

국제적으로 인지도된 기준을 적용한 합계 799품목의 농약 등에서 「잔류를 요구하는 것」만을 리스트화 하였다고 하는 의미로 이

799품목은 「포지티브리스트」라고 불리며 리스트 이외는 0.01ppm이하야만 한다. 사실상 「잔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농약이나 사료첨가물 등이 대상이 된다.

이것에 대해 중국 상무성에서는 「일본의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는 기술적 기준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무역의 공평함과 관계되어 중국의 농산물 관련 산업과 농민의 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규정하고 개정법을 일·중간의 무역문제로 간주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농산물의 대일 수출에는 중국 회사 약 6300사와 1600만명의 농민이 관계되어 있다고 한다.

중국은 일본이 식품의 품질보증을 전제로 일·중간의 농산물 무역이 영향을 받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바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법의 규정으로 중국 측에는 검사대상의 농약이 큰 폭으로 증가해 수출 때의 검사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어 수출업자로부터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를 두고 농산물 수입 시 필요이상으로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은근히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 결과 중국측이 「불공정 무역」이라고 판단하면 어떠한 대일 보복조치도 있을 수 있다. 단지 일본의 규제당국인 후생노동성은 개정법의 시행 전에 중국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계속하여 왔다. 상무성이나 국가 질량 감독 검사 검역 총국과 계속 협의를 실시해 담당자가 중국을 방문하고 산둥성 청도시에서 현지 농업 당국과 공동으로 새로운 규제내용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거듭하여 왔다.

중국 측도 작년 말부터 상무성과 검역총국이 포지티브리스트 제도에 대한 국내 기업 연수를 각지에서 실시하는 한편 농업 관계자나 식품 수출업자를 초청, 세미나를 개최

하고 일본측의 신 규제의 골격이나 농약 저감에 대한 기술지도를 계속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방의 농업당국이 일본의 제도를 과도하게 경계해 농산물 수출을 정지하거나 수출허가를 갑자기 취소하는 등의 혼란이 생기고 있다.

일본의 개정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던 상무성에 의한 이번 반발은 이러한 국내 혼란의 비난회살을 일본으로 향하게 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녹안전협회, 창립 10주년 역할과 사명 재확인

(사) 녹의안전추진협회(본부 도쿄)는 지난 5월 31일 동경 이케노하라 문화센터에서 1995년 사단법인으로 발족한 후 10주년을 맞이하여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녹안전협회의 전신인 임의단체로서 녹의안전추진협회가 설립된 것은 1989년이다. 1980년대에 들어와 골프장 개발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이러한 개발행위에 반대하는 환경보호단체 중에서 골프장의 농약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의 우려가 주창되었고 매스컴 논조에도 광범위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아래 1989년에 골프장 녹지에 대하여 농약안전사용의 추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약공업회의 주도로 골프장 관계자, 방제업자, 식물방역 관련단체 등에 의하

여 임의 단체로 녹의안전추진협회가 설립되었고 1995년에 사업 대상을 농업생산을 포함한 농약전반으로 확대해 녹안전추진협회가 재창설되었다. 이후 녹안전협회는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병해충 및 잡초방제에 대한 농약안전사용의 추진활동에 임해왔다. 활동의 전환기가 된 것은 당초의 골프장, 조경업자 등의 지도자층에 대한 연수회 개최에 더하여 1991년부터는 녹의 안전관리사의 인정 연수회가 개시되어 현장에 대한 지도자의 육성을 도모하여 왔다.

최근의 무등록농약 사용으로 발단된 농약관리법을 개정하였고, 광우병 문제 등을 기회로 음식물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져 왔다. 또한 포지티브리스트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기념식장에서는 음식물의 「안전 안심」보



다도 음식물의 「안전 신뢰」가 적당한 것이 아닐까라는 소리도 들려왔다. 업계는 지금

이야말로 녹안전협회의 역할과 사명이 매우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기념식을 마쳤다.

GM작물 증가로 농약소비량 감소

미 전국식물방역협회(ANDEF)조사에 의하면 유전자변형(GM) 작물의 재배가 보급된 결과 농약의 판매가 앞으로 수 년간에 2할 정도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였다. 가령 500만ha의 유전자변형 대두가 재배된다면 농약은 2억30만달러의 수요 감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농업바이오기술연구기관(ISAAA) 조사에 의하면 브라질의 유전자변형 대두의 재배면적은 2004년에 440만ha이던 것이 2005년에는 940만ha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다. 종묘업자에 의하면 올해는 34% 성장으로 재배면적이 1,260만ha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농약제조회사는 유전자변형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분야, 예를 들면 대두의 녹, 곰팡이병 방제 대책으로 농약연구에 투자한다. 또한 세계적 추세에 따르면서 종자회사의 매출도 고려하고 있다.

파라나주에서는 유전자변형 식품 규제강화를 위하여 식품의 라벨 검사를 위한 감독관청 직원 400명을 동원하였다. 주 농무국(SEAB) 감독과 마루젠노 시루아 과장은 1%를 초과하는 유전자 변형 성분을 함유하는 식품에는 반드시 라벨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소비자 보호법」에 근거,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키기 위하여 규제가 시행되도록 감독한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농약공업회, 음식물 ‘안전·안심’ 적극 홍보

일 본농약공업회(JCPA)는 2006년도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음식물에 대한 안전·안심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로써 농약사용자에 대해서는 농약의 적정사용을 호소·지도하고 소비자 및 유통, 가공업자에 대해서는 농약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깊게 함으로써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로 하였다.

소비자대책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농약세미나」에 대해서는 본부 개최와는 별개로 지부(지방) 개최도 충실히 하기로 하였다.

또한 생산자대책으로서는 지난 5월에 전격 시행되었던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를 정착시키고 안전대책 및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사업계획 중에는 특히 지부 활동을 지적할 수 있다. 지방행정 등과 연대를 긴밀히 함으로써 대소비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협회의 행동규범 준수 철저,

IPM(종합적병해충 관리)이나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등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키로 하였다.

또한 앞으로 농약관리법의 근원적 개정을 위해 연구 검토하고 제반 정세에 대해서 행정기관과 긴밀한 제휴함으로써 업계 전체의 적절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日농림성, 2006 농약위해방지운동 실시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및 도도부현의 공동개최로 농약사용기회가 많은 6월 한 달 동안 「농약위해방지운동」을 실시한다. 이 운동은 이제까지 농약의 적정한 사용 및 보관관리 철저 등에 큰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 5월 29일부터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포지티브리스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약의 비산에 의한 주변 농작물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밀한 지도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앞으로 더욱 이 운동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지,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 본 운동의 보급철저를 도모하는 한편 농약의 적정한 사용과 보관관리의 지도, 환경의 위해방지대책 등의 강습회와 연수회 개최, 중독시의 응급처치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본 운동에 의해서 농약의 적정한 사용 및 보관관리가 한층 철저히 되고 농약에 의한 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기

를 기대하고 있다.

농약을 사용할 때는 다음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농약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농약의 라벨을 잘 읽고 사용기준(적용대상작물, 사용농도, 사용시기)을 준수한다. △이전에 살포한 농약이 남지 않도록 살포용기를 잘 씻는다. △최종 유효기간을 경과한 농약은 사용하지 않는다. △농약을 살포할 때에는 목적으로 하는 작물 이외에 농약이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살포한다. 즉, 바람이 없거나 약 할때(풍속 3m/s이하)에 살포하고 살포압력을 높이지 않으며 차단막 등을 설치한다. 비산 가능성이 적은 농약을 사용하며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비산이 발생하기 쉬운 때에는 손으로 살포한다. △토양소독을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피복을 실시한다. △농약의 사용상황 등이 파악 가능하도록 기록을 한다. △농약은 서늘한 곳에 잠금장치를 하여 보관한다. 